



아라쉬: 음. 그렇네요

마술협회에 소환되었을 때 라던지?
마스터가 정해두신 것이 없으시다면



Kaming (GM): 호우호우 그렇군요



아라쉬: 휘히.



Kaming (GM): 그러면 어디보자 잠시만요

종습니다양
준비끝



아라쉬: 념

저도 준비 됐어욧



Kaming (GM): 그러면 시작해볼까요

=====

시간은 조금 돌아가 네비로스의 습격 이후가 됩니다.

'연맹'의 소환된 영웅혼 즉 명령들은 주기적으로 '연맹'에 돌아가 그 상태를 확인하는것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.

대부분의 명령들은 일본의 평화가 찾아옴과 동시에 자신의 의무를 마쳤다고 생각하여 돌아갔지만 아라쉬같이 특별한 경우도 있는겁니다.

'연맹'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사신의 단편을 찾아다니고있지요.



Kaming (GM): 아라쉬는 슬슬 '연맹'에 돌아갈때가 되었음을 알게됩니다. 일시적이지만요.

소환사에 곁으로 순식간에 이동 할 수 있기때문에. 거리가 어떻든 문제는 없을꺼같네요.



아라쉬: 그럼... 출발하기 전에 메일로 연락을 넣어두고

소환사의 곁으로 이동하죠



Kaming (GM): ----

연맹의 본부는 영국에 있지요.

그러면 잠시후

익숙하다면 익숙한 건물내부가 보이겠네요.

일본과는 다른 서양적인 느낌이 물씬나는 건물

'마술 연맹의 본부'



Kaming (GM): 그리고 그런 아라쉬를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당신의 소환사



엘자: "슬슬 올때라고 생각했어"

당신을 소환한 소환사이자 마술사인 엘자입니다.



Kaming (GM): (전신샷이라 그런가 역시 작게나오는군요요)



아라쉬: "오우. 오랜만. 마스터."

손을 들어보이며.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.

"저번의 검사 이후로 처음인가."

-



엘자: "검사때가 아니라도 조금 얼굴을 비춰주면 좋을텐데..">@살짝 입술을 내밀며



아라쉬: "미안미안. 이쪽도 나름대로 사건이 많아서 말이야."

"일본에 자진해서 남은만큼. 이쪽의 일은 내쪽에서 처리를 해둬야지."

머리를 긁적이면서 미안한듯 쓴웃음을 짓습니다

-



엘자: "뭐 그렇다면야. 그래도 다음에는 자주 얼굴비추라구" @다시웃으며
"일본은 지낼만해?"



아라쉬: "그렇네. 거의 직업도 재밌고."



엘자: "음 분명 스텐트맨이라고..했던가?"
@생각하는표정을 지으며



아라쉬: "아아. 아르바이트 형식이지만 말야."
"몸 쓰는 일은 특기니까. 의외로 딱 맞는 일인것 같아."

-



엘자: "헤에~ 그럼 언젠가 영화같은데에서 볼 수 있는거 아니야?"



아라쉬: "그렇네. 얼마전에도 하나 촬영이 끝났어. 영국에서도 개봉할지는 모르겠지만."



엘자: "오..어떤영화야?"
@흥미를 가진듯합니다.



아라쉬: "어-..."
조금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.
"아라쉬라는 인물에 대해 그린 영화."



엘자: "....."@잠시 멍해졌다가.
"푸..푸하하하 그게뭐야"
@이내 폭소
"자신의 이야기에 자신이 등장한다는거야?"



아라쉬: "나도 처음에는 웃었다고. 설마 나같이 극동에서 마이너한 인간의 영화를 찍는데."
"거기에 본인을 부르게 될줄이야."
"일단은, 가명을 쓰고 있으니까 감독도 몰랐겠지만."

-



엘자: "아하하 설마 거기서 그거 쓴거야? 그거?"



아라쉬: "쓰는 씬은 찍었네. 산을 뛰어 올라가고 활을 쏘는 장면."
"뛰어 얼굴은 나중에 합성으로 배우 얼굴이 되겠지만."



엘자: "푸쿠..후 그거..아쉽네"



아라쉬: "괜찮은 영화야. 배우들 연기도 좋았고. 나야, 액션신에서나 몸통 부분이지만."
어깨를 으쓱 합니다.

-



엘자: "나중에 개봉하면 알려줘 꼭! 볼테니까"@눈물을 흘리며
"아아 오랫동안 웃었다."
"여기는 조금 너무 고지식해서..웃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거든"
"다들 단편을 찾는거에만 몰두하고있고.."
"솔직히 나는 아직도 조금 이해가 안가. 일본의 평화가 찾아오자마자 찾을 단편이 없다면서 바로 철수를 정한 건..."

"그곳에서 싸우고..희생된 동료들..또 피해를 입은 사람들..그것을 생각하면..">@조금 어두운 표정이 되네요.



아라쉬: "...인간이란건, 공포심에 강하게 충동당하는 생물이니까."

"조금이라도 빨리. 적을 찾아내서 없애고 싶은거겠지."



엘자: "그런건가...나는 조금 모르겠어"

"아 미안 오랫동안데 이런 어두운주제는 조금 그렇겠지">@다시 웃으며

"그럼 바로 검사실로 갈까?"



아라쉬: "그래."



엘자: 그럼 엘자는 아라쉬를 안내합니다.

주변의 몇몇 마술사들이 아라쉬를 알아보고 간단히 인사를 건네오고

그러는동안 검사실에 도착하죠

검사실은 마술사가 아닌 아라쉬가 느낄정도로 마력이 넘치는곳입니다. 영령의 소환도 이곳에서 이루어지지요.

아라쉬도 처음 이곳에서 소환되었죠.



아라쉬: 그날로부터 시간이 꽤 흘렀군요

검사실로 들어설 때 마다 첫 소환의 때를 떠올리면

세월의 흐름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새삼 깨닫습니다

옆의 엘자는 그때로부터 나이를 몇이나 먹었던가.

-



엘자: 엘자도 마술사인만큼

겉으로는 티가 안나는것 같습니다.

이레보여도 꽤 훌륭한 마술사로서 연맹에서 이름을 떨치고있지요.

"자 그럼 검사를 시작할게. 조금 실례할게"

그러면 엘자는 조금 장난스럽게 웃고

방의 중앙에 아라쉬를 서게한뒤



엘자: 아라쉬의 가슴에 손바닥을 놓고 눈을 감은채

무언가 중얼거립니다.

아라쉬는 몸전체의 마력이 타고다니는듯한 느낌을 받지만 불쾌하지는 않습니다.

"....."

@잠시후 눈을 뜨며

"다행히 이상은 없는것같네"



엘자: @손을 때조



아라쉬: "오우. 나한테는 '건강'이라는 스킬이 있으니까 말야."

씨익 웃어보입니다.

-



엘자: "그런데 조금 힘이 돌아온것같은데?"



아라쉬: "아아. 최근 들어서 꽤 커다란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어서."



엘자: "...? 일본은 이제 평화로운게 아니었어?"

@가웃



아라쉬: "섬 내부의 이야기 인것 같은데... 영맥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."

"일단 이쪽도 그 건에 대해서 조사중이긴 한데."

"과연 어떻게 흘러갈지."

-



엘자: "흐음..."

"과연 혹시 도움이 필요한건 아니야?"



아라쉬: "아직은 괜찮아."

"뭐어. 무슨일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 할게."



엘자: "응 꼭이야"



아라쉬: 그럼 엘자를 보며, 속으로 생각하겠네요

연맹이, 자신보다도 강력한 영웅혼이 아닌, 궁병인 자신을 남기고 간 것은
일본을 감시하면서, 혹시나의 사태에서 연맹이 개입할 때 까지의 시간 벌이를 위한
수단이었다는 것을.



엘자: "뭘 그렇게 생각하는거야. 검사도 끝났으니 오랫동안에 한잔하자구!"



아라쉬: "그럴까."



엘자: @쾌활하게 미소짓는 엘자



아라쉬: 엘자에게는 알리지 않았습시다만. 자신은 이 역할에 대해 불만은 없습니다
"저번에 마셨던 곳으로 갈까."

-



엘자: "아 거기 좋지"

그렇게 여러분이 방을 나서면
한눈에 봐도 아름다운 여성이 여러분과 눈을 마주칩니다.



[발키리]브륀힐데: "아라쉬와..그 마스터군요. 오랫동안이네요"

[발키리]브륀힐데. 아라쉬와 같이 일본의 대재앙때 소환된 영웅혼입니다.
아마 검사를 위해 찾아온듯하네요.



아라쉬: "랜... 브륀힐데인가. 오랜만인걸."



[발키리]브륀힐데: "예. 혼자 일본에 남으시겠다고 했을때는 조금 걱정했지만 잘 지내고계신듯 해서 다행이네
요"

"오늘은 검사때문에..?"



아라쉬: "뭘. 그런거야. 보아하니 당신도 그런것 같은데."

"이쪽에서의 단편 찾기는 어때?"

-



[발키리]브륀힐데: "그렇네요... 단편은 순조롭게 모이고있어요. 단편을 가진자들..모두 사랑스러워서...."

"그이를 생각나게 하니까요"

@웃지만 무섭네요



엘자: "ㄱ..그렇구나. 그런데 그쪽 소환사는?"



[발키리]브륀힐데: "저는 검사가 끝난참이라 마스터는 저랑있는게 거북한모양인지 금방 사라져버렸어요"



아라쉬: "그런가. 뭐어. 그쪽도 그쪽 나름대로 고생이로군."



[발키리]브륜힐데: "훗..아라쉬는 정말 배려깊으신 분이군요. 마스터와도 사이좋고...그이도 당신처럼 상냥하고 배려깊었는데..."

@뭔가 오오라가 무서워졌습니다.

"점점더 그이와 닮아보이는군요. 아라쉬"



엘자: "ㅇ..우리는 이만 약속이있어서 그만갈까? 아라쉬"



아라쉬: "오, 오우."



[발키리]브륜힐데: "어머 그렇군요. 그럼 다음기회에.."



아라쉬: 브륜힐데가 들고 있는 창이 무게중심이 더욱 무거워지는 것을 슬쩍바라본뒤

엘자의 뒤를 따라가겠네요

"...여전하구만. 랜서는."

-



엘자: 엘자와 아라쉬는 도망치듯 멀어지는군요

"ㄷ..조금 무서웠지"

"아라쉬도 알잖아...그녀의 싸움법"

"아무래도 사신녀석들에게서 그 시구르드와 비슷한 느낌을 느끼나봐.."



아라쉬: "아아. 일본에서의 공투에서. 똑똑히 보셨지."



엘자: "그때마다 무섭게 변해서..."@살짝 몸을 떨죠

"물론 든든하기는 한데말이야"

"아 그러고보니 아라쉬는 왜 랜서가 여기에 남아있는지 알고있는거야?"



아라쉬: "아- 그건. 나도 연맹의 소식통은 열어놓고 있으니까."

"영웅흔들과 관련된 소식은 접할 수 있다고."

"이쪽에서 무언가를 전달할 기회가 적어서 그렇지."

-



엘자: "그렇구나"

@그렇게 두런두런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의 단골집에 도착합니다.

"그런데 아라쉬는 정말 왜 여기에 남은거야?"

@몇잔 술을 마시자 엘자가 물어봅니다.



아라쉬: "응? 그렇네..."



엘자: "사실 엄청 궁금했거든"



아라쉬: "십수년을 넘어서 물어보는건가. 하하."



엘자: "뭘까..조금 실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..그래서 오늘은 술의 힘을 빌려서 물어본거야"



아라쉬: "아냐. 그렇게 오랫동안 궁금해 했다면 대답해 줘야지."



엘자: "용기를 낸거라구!"

@술잔을 들어올리며



아라쉬: "그렇네."

잠시 맥주를 내려다 봅니다.

"가야 할 시기'를 놓쳤다. 라고 해야할까."

-



엘자: @홀짝

"뭔가..소원같은건 없는거야?"

"믿기 어렵지만...우리 연맹이 미치도록 '단편'에 목숨을 거는건..어떠한 소원이라도 이루어진다는..그것때문이기도 하니까"

"지나쳐서 오히려 사신들의 먹이가 될 때도 있지만.."

@홀짝



아라쉬: "그렇네."

"내 소원은, 생전에 이루어졌어."

"사후에 남은 미련은... 후회는 없어."

"나의 삶은. 그런 인생이었으니까."



엘자: "...그렇구나. 그럼 언제나 이렇게 마실 수 있는건가?"@씨익



아라쉬: "하하."



엘자: "실은 이렇게 마셔줄 사람이 별로없는걸"

"어떻게보면 '연맹'의 마술사들은 경쟁자..라는 의식이 있는거같으니까"

@살짝 쓸쓸한듯 맥주잔을 쓰다듬습니다.



아라쉬: "그런가. 너도 나이구나."



엘자: "나이에기는 조금 민감하니까 건드려주지 않아줬으면 하는데"



아라쉬: "앞으로는 톡톡히 올게. 마스터."

"검사 때가 아니더라도 말야."



엘자: "고마워.."@웃음



아라쉬: "..하지만, 알고 있지? 영웅혼은,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."

"내가. 엘자 너의 부름에 응했던 이유는."

"너의 바램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야."

"나는 싸움을 끝내는 영웅. 어느 시대, 어느 세계에서든. 싸움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. 그 싸움을 멈춰."

"그리고 그 때가. 내가 '가야할 때' 겠지."

-



엘자: ".....뭐야 갑자기 부끄러운말 하고.."

@살짝 얼굴을 붉힌채 고개를 숙입니다.



아라쉬: "아니 뭘."

"내가 싸움을 끝내면. 엘자도 좋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."



엘자: "그런걱정은 댔네요!"



아라쉬: "하하하!"



엘자: @하고 술을 원샷합니다.

"푸하! 그런데 아라쉬 그때 일본의 사건사고가 많아졌다고 이야기했지?"

"사실 그이야기듣고 조금 안좋은 예감이 들어서.."



아라쉬: "마녀의 예감은 반쯤 예언이잖아?"

"뭔가, 탐지한거야?"

-



엘자: "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쫓고있는 존재. 앙그라마이뉴의 대해서는 알까모르겠지만. 한때 유럽의 일본의 일어난일과 비슷한 일이 일어난적이 있었거든 그 주범인 사신이야"

"그래서 이번 일본사태도 그 앙그라마이뉴의 소행인가 싶어 우리도 전력을 다해 일본으로 향한것도있어 결국 흔적조차 못찾았지만.."



아라쉬: "앙그라마이뉴. 조로아스터교의 악신인가."

"조로아스터 교는 페르시아. 즉 내 고국의 종교니까."

"물론, 그 이름도, 성질도 알고 있어."

"...그런가. 앙그라마이뉴..."

"주의할게."

-



엘자: "응 안좋은 예감이 들어"

@걱정스러운 표정

"뭘랄까..여태까지 평화로웠잖아?"

@일본이

"부자연스러울정도로.."



아라쉬: "그렇네."

"이것이,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고 한다면."

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얼굴을 찡니다.

"뭘. 활은 녹슬지 않았어."

"거기에. 일본에도 믿을 수 있는 동료들도 있고."

-



엘자: "그렇다면 다행이야. 내 지나친 걱정이었을지도.."

"뭇하면 연맹장한테 찾아가서 어떻게든 도움을 받아낼테니까"

"그때는..의지해줘?"



아라쉬: "아아. 물론이야."

그럼. 잔을 들어올리겠네요

-



엘자: @잔을 마주 들어올리며

"뭘어 난 아라쉬를 믿지만 그 앞길에 축복이 함께하길."

@마녀의 말이 주문이되어 아라쉬를 감쌉니다.

축복의 말



아라쉬: "그럼. 이쪽도. 엘자의 여정에 행운이 가득하길."

마녀의 말과는 달리, 단순한 기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만.

진심을 담아, 잔을 마주칩니다

-



엘자: 짤



Kaming (GM): 그렇게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마시며 오랜만남의 뒷풀이를 계속했습니다.

아라쉬는 훗날 생각하겠지요.

이날 엘자가 말했던 불길한 예감이 그리고 지금일어나는 사건사고가 폭풍을 알리는 시작점이었다고..

=====